

고용보험DB를 통해 살펴본 통영·군산 조선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유동훈 · 강동우**

I. 머리말

중국 등 신흥국의 물동량 증가 및 1970년대 건조된 선박의 교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0년 중반 이후 세계 선박시장은 초호황세를 보였다(홍성인, 2017). 이 시기에 한국의 조선업이 크게 확장되었는데,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가 입지한 울산시, 거제시 등의 지역뿐만 아니라, 통영시 등 선박 건조가 가능한 지역에서 중소 조선업체들이 소규모 상선을 건조하며 급속히 성장하였다(배규식 외, 2014: 170).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이 위축되었고,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선박 발주 역시 급감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해양플랜트 수주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지만, 통영시 등에 위치한 중소 조선업체들은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소 조선업체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고용이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며, 정부는 그 정도가 심각했던 통영시를 2013년 1월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윤윤규 외, 2013).

2010년 이후,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 추세 속에서 대형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 수주 전략은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2014년 중반 배럴당 40달러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취소되고, 인도 거부 및 지연이 발생하면서 대형 조선사들도 위기에 봉착하였다(배규식 외, 2017). 국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규 선박 발주는 감소하였지만, 조선업체들은 이미 발주된 조선 및 해양플랜트의 인도를 위해서 2016년까지 사내하청 및 물량탐을 사용하여 생산을 이어갔다. 또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중소 조선업체의 퇴직 근로자 및 일자리를 잃었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배규식 외, 2016).

* 이 글은 윤윤규 외(2018),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 기초연구』의 제3장 및 제4장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유동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erojuli@kli.re.kr).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dwkwang1982@kli.re.kr).

그러나 2016년 이후 한국의 조선업체와 협력업체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다시 한 번 고용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시, 거제시, 창원시, 목포시에 ‘조선업희망센터’를 설치하여 고용충격을 감소하고자 노력하였다(고용노동부, 2016; 고용노동부, 2017). 또한 2018년 4월과 5월에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 울산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및 전북 군산시를 중심으로 조선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의 특징을 지역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통영시의 경우는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의 경우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조선업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 집단을 각각 추출하고, 2018년까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산업 및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용보험DB에서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협력사 및 물량팀 인력의 다수가 포함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통영시 조선업 종사자 집단 7,573명의 일자리 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 조선업 종사자 집단 2,826명의 일자리 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설명한다.

Ⅱ. 통영시 조선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특징

<표 1>은 본 연구에서 선별한 통영시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피보험자 7,573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다. 특성 중에서 연령은 2010년 6월 30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7,573명 중 남성이 약 91%이며, 만 30~39세(39.0%)와 만 15~29세(34.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보험자 수를 살펴보면 2010~2011년과 2016~2017년 기간에 피보험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6년 조선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집단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 만 15~29세 및 만 30~39세였던 집단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한 반면,

〈표 1〉 2010년 6월 기준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도별 피보험 유지 규모와 특성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보험자 수	7,573	6,106	5,772	5,484	5,405	5,251	4,951	4,241	3,975
남성 비중	91.2	92.2	92.8	93.3	93.2	93.6	93.4	94.0	93.8
여성 비중	8.8	7.8	7.2	6.7	6.8	6.4	6.6	6.0	6.2
만 15~29세 비중	34.0	36.1	36.1	37.4	38.0	38.3	38.6	38.6	40.5
만 30~39세 비중	39.0	40.1	40.3	40.3	40.6	40.8	40.1	40.6	40.8
만 40~49세 비중	16.5	14.7	14.9	14.3	14.2	14.0	14.3	13.8	12.5
만 50~59세 비중	9.0	8.0	7.8	7.2	6.5	6.2	6.4	6.2	5.6
만 60세 이상 비중	1.5	1.1	0.8	0.8	0.7	0.7	0.7	0.8	0.7
조선업 비중	100.0	92.6	85.7	79.2	73.7	72.7	69.1	57.4	47.8
통영시 비중	100.0	77.5	65.4	50.8	43.6	41.2	40.2	33.1	27.6

주 : 2010년 6월 30일 현재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7,573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연령은 2010년 6월 30일 기준 만 나이임.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저자 작성.

만 40세 이상 집단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보험자 중에서 조선업 및 통영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업 비중은 2010~2014년 기간에 선형 감소의 특징을 보였으나, 2014~2016년 기간에 그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2016~2018년 기간에 비중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 비중 변화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10~2014년 기간의 비중 감소는 조선업 비중 감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에서 중소 조선업체가 밀집한 통영시에서는 조선업 종사자 집단의 고용상황 악화가 2014년까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상태를 유지한 종사자들조차 지속적으로 통영시를 이탈하였고, 조선업 외 타 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인 2014~2016년 기간에는 이러한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가 다시 가속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연도별 피보험자의 직종별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가 2,570명(3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선별된 피보험자 중에서 관리직 및 사무원 직종이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선업의 특성상 기능직 인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능직 인력에 대해서 중소 조선업체의 외주화 비중이 90% 이상 수준이고, 사내협력업체 및 물량팀 인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직영업체 인력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기능직 인력이 이미 감소하였고, 이 결과가 2010년 기준 자료에도 반영되었다고 사료된다.

〈표 2〉 2010년 6월 기준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직종별 규모 추이(2010년 기준 내림차순)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570	2,183	1,827	1,482	1,389	1,264	1,158	945	864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1,326	941	768	773	766	838	920	728	638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759	715	657	649	628	599	540	344	339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477	183	136	124	113	109	97	68	42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322	302	257	154	143	132	124	76	61
용접원	251	133	176	203	207	211	198	155	123
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244	221	188	132	90	61	2	2	2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99	145	105	121	100	99	82	86	6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60	73	72	88	99	83	79	73	62
기타	1,265	1,210	1,586	1,758	1,870	1,855	1,751	1,764	1,781
피보험 상태 아님		1,467	1,801	2,089	2,168	2,322	2,622	3,332	3,598

주 : 2010년 6월 30일 현재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7,573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2010년 기준 상위 9개의 직종 중에서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는 2011년 이후 피보험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2014~2016년 기간에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였고, ‘용접원’은 2012~2015년,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은 2013년,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은 2013~2014년에 증가하여 주로 기능직 인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직종 수요가 감소하였다가 2016년 조선업 위기 이전 시기까지 다소 회복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용접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서 2010년 이후 피보험자 규모의 회복이 가장 빨랐으며, 규모 증가도 가장 지속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산업 간 이동 특징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2011년에 7,573명에서 5,657명으로 1,916명이 급감한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2015년에는 감소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조선업 위기가 발생한 2016년과 2017년에 감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8년에 다시 약화되었다. 조선업 피보험자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타 산업에 고용되거나 고용보험에서 이탈하는 규모 역시 증가하였다.

<표 4>는 조선업 피보험자의 지역별 규모 추이를 나타낸다. 통영시 근무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여, 2014년 이후에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통영시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인 2017년부터는 통영시 비중이 2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타

〈표 3〉 2010년 6월 기준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산업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박 및 보트 건조업	7,573	5,657	4,949	4,344	3,983	3,818	3,421	2,435	1,90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4	81	94	113	111	123	149	136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40	62	68	111	114	103	97	12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9	57	108	137	145	136	136	129
자동차 부품 제조업		20	38	36	38	45	47	54	61
건설업본사(소분류)		17	46	78	88	96	100	124	14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	18	30	39	49	43	59	67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5	15	27	31	36	41	46	60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15	23	28	33	35	41	53	55
기타 산업		254	483	671	832	802	896	1,088	1,303
타 산업 합계		449	823	1,140	1,422	1,433	1,530	1,806	2,073
피보험 상태 아님		1,467	1,801	2,089	2,168	2,322	2,622	3,332	3,598

주 : 2010년 6월 30일 현재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7,573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표 4〉 2010년 6월 기준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지역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남도 통영시	7,573	4,731	3,773	2,788	2,358	2,161	1,992	1,403	1,099
경상남도 사천시		555	510	465	434	376	279	66	100
경상남도 거제시		237	395	683	854	869	858	836	645
부산광역시		95	207	297	323	401	384	457	480
경상남도 고성군		73	178	206	259	240	182	162	172
서울특별시		59	120	174	192	193	193	172	2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9	65	116	113	115	100	65	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9	67	79	81	82	86	92	86
울산광역시 동구		31	61	137	163	155	151	140	131
경기도		24	47	72	74	82	94	118	138
경상남도 김해시		17	33	38	50	45	49	68	90
기타 지역		196	316	429	504	532	583	662	750
타 지역 합계		1,375	1,999	2,696	3,047	3,090	2,959	2,838	2,876
피보험 상태 아님		1,467	1,801	2,089	2,168	2,322	2,622	3,332	3,598

주 : 2010년 6월 30일 현재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7,573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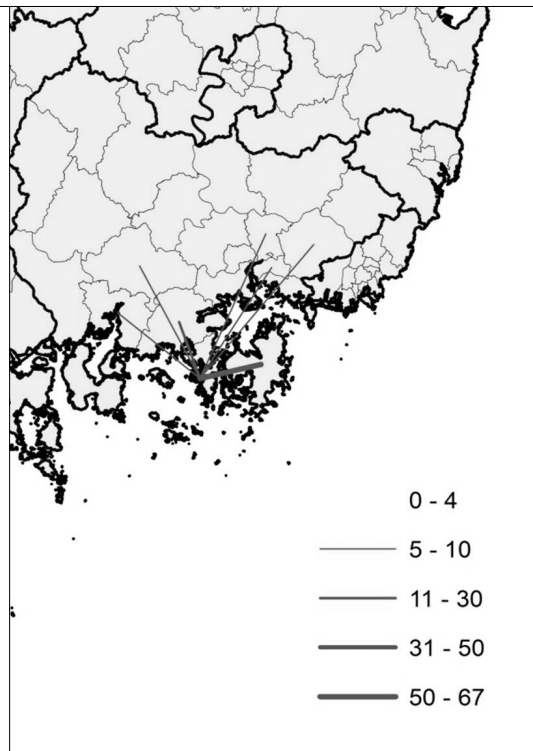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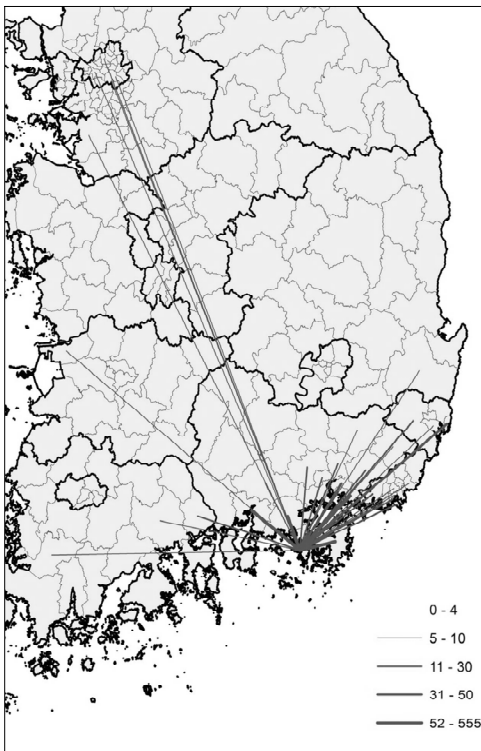
지역 비중은 약 38%의 비중을 보였다. 세부 지역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에 경남 사천시가 555명으로 가장 많은 피보험자가 근로 장소를 옮긴 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남 거제시가 237명, 부산시 95명, 경남 고성군 73명, 서울시 59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면서 경남 사천시의 규모는 감소하여 2015년에는 경남 거제시 869명, 부산시 401명, 경남 사천시 376명, 경남 고성군 240명, 서울시 19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 2018년에는 경남 거제시가 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480명, 서울시 220명, 경남 고성군 172명, 경기도 1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과 대도시로의 이동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경남 통영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2010~2011년)

[그림 2] 경남 통영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2016~2017년)

(단위 : 명)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대상의 일자리 이동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지-목적지 공간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림 1]은 2010~2011년 기간의 일자리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¹⁾ 그림에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성산구 등 통영시에 인접한 경남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이동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지만 조선업이 밀집된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전북 군산시 등으로의 이동도 발견되었다. 이 외에 인접 경남지역과 부산시, 서울시 및 경기도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 이동의 지리적 범위는 2011~2012년 및 2012~2013년에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3~2014년에는 5명 이상의 일자리 이동이 발생한 지리적 범위가 거제시(97명), 고성군(56명), 사천시(18명), 울산시 동구(13명), 전남 영암군(8명), 창원시 성산구(5명), 경남 김해시(5명), 울산시 울주군(5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기간의 주요 목적지는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4~2015년에도 유사한 지리적 범위를 보였지만, 2015~2016년 기간에는 목적지가 거제시(44명), 고성군(14명), 울산시 동구(5명) 등으로 한정되었다. 2016~2017년 기간에는(그림 2) 5명 이상 이동한 목적지가 다소 증가하여, 거제시(67명), 고성군(11명), 진주시(10명), 사천시(10명), 김해시(8명), 창원시 의창구(7명), 창원시 성산구(7명) 등으로 나타났고, 주로 통영시에 인접한 경남지역이었다. 2017~2018년에도 2016~2017년과 유사한 이동 범위를 보였다.

Ⅲ. 군산시 조선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특징

<표 5>는 2012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의 연도별 피보험 유지 규모와 특성을 나타낸다. 2012년에 2,826명이었던 피보험자는 2013년에 2,119명, 2016년 1,864명, 2017년 1,120명, 2018년 1,247명으로 확인되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2012년 기준 피보험자의 25~34%의 근로자가 피보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피보험 상태가 아닌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에 급격하게 증가해, 2012년 기준 피보험자의 60.4%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상황이 약간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 군산에 위치한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 55.9%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피보험자 비율은 2012년에는 8.4%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이 비율이 감소해 당해 연도 피보험자 중 6.9%만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피보험자 연령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연령은 2012년 기준), 2018년에 만 15~29세와 만 30~39세 피보험자의 비중이 2012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까지 전체 피보험자에서 만 15~29

- 1) 조선업 여부에 관계없이 통영시에 근무한 피보험자가 다음 해에 근무한 지역을 통영시와 목적지 간의 직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5명 미만의 이동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자리를 이동한 피보험자 수가 많을수록 직선을 더 굵게 표시하였다.

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만 30~39세 피보험자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로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고용위기 직후 만 30~39세 피보험자 집단에서 피보험 상태 이탈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전후로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 피보험자 중 2016년에는 77.1%, 2017년 42.9%, 2018년 30.2%로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이동 상황을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에는 63.7%가 전라북도 군산시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3.9%와 27.8%로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당해 연도 피보험자 대비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77.1%에서 2018년 기준 30.2%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도별 피보험 유지 규모와 특성

(단위 :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보험자 수	2,826	2,119	1,979	1,884	1,864	1,120	1,247
남성 비중	91.6	91.6	92.0	92.6	92.9	93.0	93.1
여성 비중	8.4	8.4	8.0	7.4	7.1	7.0	6.9
만 15~29세 비중	18.4	16.8	17.0	17.2	17.0	22.4	22.2
만 30~39세 비중	45.6	46.9	48.3	48.5	50.0	46.4	47.1
만 40~49세 비중	22.0	22.3	21.1	20.8	20.7	19.1	19.2
만 50~59세 비중	10.6	10.6	10.3	10.5	9.6	8.8	8.9
만 60세 이상 비중	3.4	3.4	3.3	3.0	2.7	3.2	2.6
조선업 비중	100.0	90.3	82.7	79.0	77.1	42.9	30.2
전라북도 군산시 비중	100.0	85.5	76.5	67.8	63.7	33.9	27.8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연령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만 나이임.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표 6〉은 연도별 직종 비중을 보여준다. 2012년에는 용접원의 비중이 36.3%로 월등히 높았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25~3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비중이 급락해 2017년 6.3%, 2018년 7.4%로 2012년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이는 조선업이 겪은 고용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추측 가능한데, 용접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선박 제조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8.4%에서 2018년 27.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의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지 2017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표 6〉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직종별 규모 추이(2012년 기준 내림차순)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접원	1,027	663	563	472	475	71	92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519	381	373	370	450	266	341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44	156	127	101	105	55	40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2	148	129	117	91	47	34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89	81	70	69	80	64	68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81	56	54	55	49	27	21
배관공	66	47	38	44	46	12	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59	51	43	42	25	12	12
가구, 목제품, 간판 제작, 공예원, 세공원, 악기 제조원, 기타 제조기계 조작원	44	69	50	37	33	15	10
기타	375	467	532	577	510	551	629
피보험 상태 아님		707	847	942	962	1,706	1,579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경남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표 7〉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산업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826	1,914	1,636	1,489	1,437	480	376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8	50	32	33	55	65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2	34	41	40	61	72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7	37	36	38	46	7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0	14	11	10	15	23
자동차 부품 제조업		9	14	14	17	45	49
건설업본사(소분류)		7	9	11	17	35	58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	7	2	6	4	5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4	8	6	8	11
기타 산업		90	174	240	260	371	518
타 산업 합계		205	343	395	427	640	871
피보험 상태 아님		707	847	942	962	1,706	1,579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피보험자 중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타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비중은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타 산업 종사자 수가 427명에서 640명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조선업 종사자 수 감소에 비하면 그리 큰 폭의 증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부문(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조선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고용에서 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2018년에는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비중이 5%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 이동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군산을 떠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6월 30일 기준 2,826명의 피보험자들 가운데 2018년 6월 30일을 기준 군산에 위치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이는 346명(27.8%)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보다는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산시를 제외하면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고용자가 일할 수 있는 비슷한 산업 및 직종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지역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라북도 군산시	2,826	1,811	1,514	1,276	1,187	380	346
울산광역시 동구		105	141	214	236	162	190
경상남도 거제시		34	35	31	47	57	29
전라남도 영암군		13	35	37	44	45	58
울산광역시 남구		12	14	15	16	7	8
전라북도 익산시		10	15	19	18	29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8	7	3	3	2	3
울산광역시 울주군		7	13	17	14	9	10
전라북도 완주군		7	10	15	13	2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6	8	8	5	7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6	4	5	5	4	4
기타 지역		100	183	244	276	397	505
타 지역 합계		308	465	608	677	740	901
피보험 상태 아님		707	847	942	962	1,706	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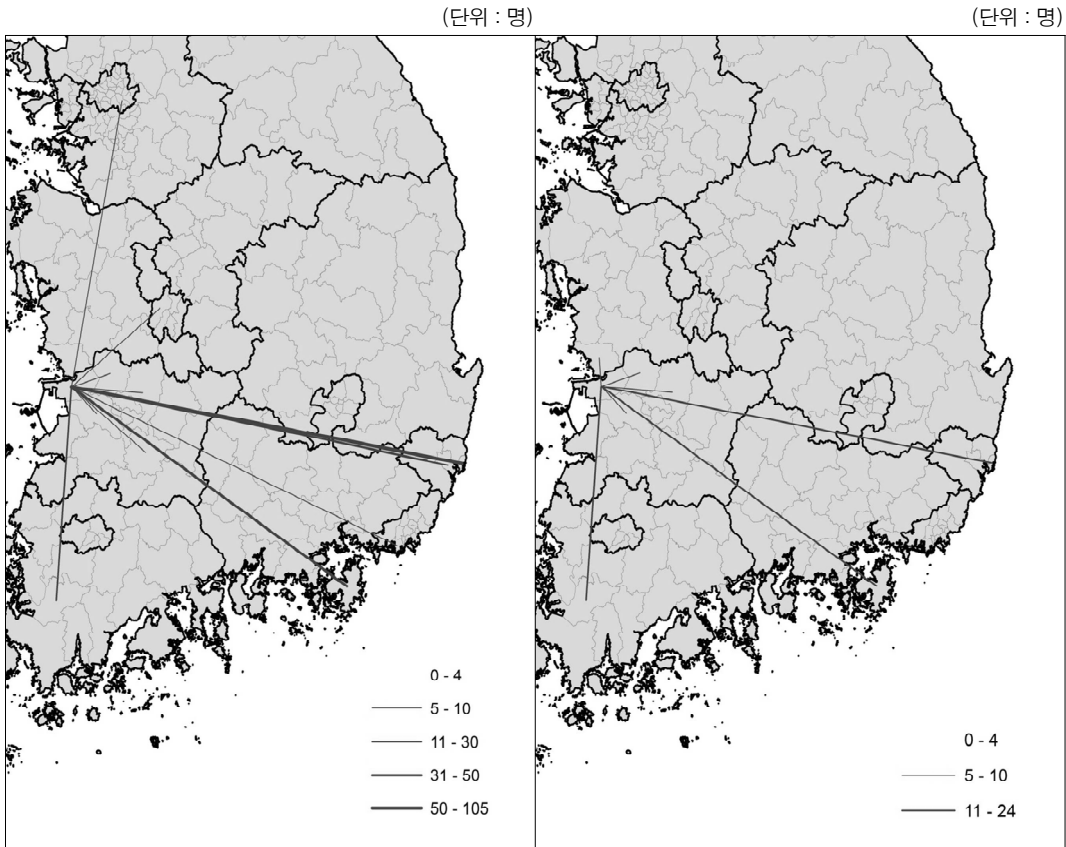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 1월~2018. 6월.

[그림 3]과 [그림 4]는 전북 군산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도로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이 시기에 많은 수의 피보험자가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영암군,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와 서울특별시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보여준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피보험자의 대부분은 군산시 인접 지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전북 군산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2012~2013년)

[그림 4] 전북 군산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2016~2017년)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Ⅳ. 시사점

본 연구는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조선업 위기에 따라 고용위기가 발생한 통영시와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일자리 이동 특징을 지역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통영시와 군산시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동종산업 또는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으로의 일자리 이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산업 구조조정 진행 단계별 직종 수요 변화를 고려하는 이직 지원 전략이 구축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통영 조선업 피보험자들은 2011년 이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와 함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설업본사(소분류)’ 등의 분야로 이직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산업 간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겠다. 특히 어떠한 측면에서 산업 연관성이 형성될 수 있고, 연관성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으며, 발견된 특징을 바탕으로 산업 간 이직 지원을 어떻게 원활히 할지에 대한 방안 탐색과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보험자의 규모 변화가 직종과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기능직의 경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규모가 감소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회복되는 특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의 고용충격에 의해 초기에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차후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이직 지원에서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즉, 직종 수요에 대한 일시적 충격과 항구적 충격을 구분하는 이직 지원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6), 「보도자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_____(2017), 「보도자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_____(201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배규식 · 이규용 · 이상호 · 조임숙 · 윤미례 · 고영우(2014), 『지역유형별 고용 평가-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이정희·정홍준·박종식·심상완(2016),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정홍준·심상완·박종식·이현(2017),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전직 지원의 고용 효과』, 고용영향평가 시리즈.

산업통상자원부(2018), 『보도 참고자료: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윤윤규·강동우·유동훈(2018),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이상호·오상훈·심상완·우종원(2013),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홍성인(2017),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기반 분석과 재도약 전략』, 산업연구원.